

## AI 시대에 신학 논문을 쓴다는 것\*

- 저자성 · 책임성 · 자기화, 그리고 기도

김학철 (연세대학교 부교수)

고형상 (연세대학교 조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AI 시대 일반 학술 논문 쓰기와 신학 논문 쓰기의 자리

1. 생성형 AI와 학술 논문 쓰기의 구조적 변화
2. 신학 논문 쓰기의 고유성: 지식 생산을 넘어 신학자의 자기 형성으로

### III. 저자성: 신학 논문에서 누가 말하는가

### IV. 책임성: 신학의 언술은 누구 앞에서 책임지는가

### V. 자기화: 생성된 텍스트는 어떻게 '나의 말'이 되는가

### VI. 기도: 저자성 · 책임성 · 자기화의 영적 기반

### VII.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6.65.01>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NRF-2026S1A5A2A010 09209). 본 논문 작성 시 인간 저자와 AI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미리 밝히고자 한다. 저자들은 논문의 아이디어와 핵심 개념, 구조와 논증, 문장 작성 및 참고문헌 교차 검증 등을 담당했고, AI(Claude, Liner)는 참고문헌 탐색 및 문헌 요약, 문장 교열 및 그에 따른 문장 작성, 영문초록 초안, 각주 등의 양식 정비 등의 작업을 수행했다.

---

• ABSTRACT •

---

Writing a Theological Paper in the Age of AI:  
Authorship, Responsibility, Appropriation, and Prayer

Associate Prof., Kim, Hak-Chol (Yonsei University)  
Assistant Prof., Ko, Hyongsang (Yonsei University)

This paper redefines theological writing in an era in which generative AI has transformed academic writing. Beyond asking whether AI may be used, it asks what writing theology now means. The crisis lies in the offloading of higher-order cognition (comparison, evaluation, and structuring) and the consequent erasure of the writing process. Writing is reconceived not as knowledge production but as a performative practice through which the theologian is formed, articulated as a cycle: appropriation passes external resources through one's own thinking and grounds authorship; authorship is completed as theological utterance through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deepens appropriation. Prayer is not a fourth element but the performative ground of this cycle, locating the writer *coram Deo*. So understood, theological formation is distinguished from general scholarly formation by its locus before God, its passage through faith, and its ecclesial confession.

**Key words:** Generative AI, Writing a Theological Paper, Authorship, Responsibility, Appropriation, Prayer, Self-Formation of the Theologian

---

## I. 들어가는 말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학술 글쓰기의 조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AI 시대 학술 글쓰기 담론은 크게 두 갈래로 정리된다. 첫째는 AI 학술 윤리 담론이다.<sup>1)</sup> 이 담론은 AI가 저자가 될 수 없고 모든 책임이 인간 저자에게 귀속된다는 규범적 합의를 도출한 성과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대체로 ‘무엇을 허용·금지할 것인가’의 차원에 머무는 측면이 있다. 둘째는 AI 시대에 저자성과 행위 주체성에 관한 담론이다.<sup>2)</sup> 이 담론은 ‘인간-AI’ 공동 산출에서 책임이 어떻게 귀속되는지를 법학과 정보철학의 도구로 정교하게 분석하는 데 집중한다.

한편, 신학은 주로 AI를 신학의 주요 주제들과 연관 지어 왔다.<sup>3)</sup> 대부분의 신학 담론은 ‘AI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이해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중심으로, 신학의 전통적인 주제인 인간론, 창조론, 관계성 등의 관점에서 AI를 해석한다. 그러나 신학적 글쓰기 자체에 관해서는 본격적인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이 공백에 주목하여, AI 시대에 신학 논문을 쓴다는 것의 의미를 수행적 차원에서, 곧 신학 논문 쓰기를 신학자의 자

1) AI 도구의 학술 글쓰기 활용에 대한 학계 일반의 입장 정리로는 다음을 보라.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Authorship and AI Tools,” *COPE Position Statement* (February 13, 2023); UNESCO, *Guidance for Generative AI in Education and Research* (Paris: UNESCO, 2023).

2) 이에 대한 법학·정보철학적 분석으로는 다음을 보라. Sandra Wachter, Brent Mittelstadt, and Chris Russell, “Do Large Language Models Have a Legal Duty to Tell the Truth?” *Royal Society Open Science* 11/8 (2024), 1-38.

3) AI와 신학을 본격적으로 다룬 대표 저작으로는 다음의 글들이 있다. Ilia Delio, *Re-Enchanting the Earth: Why AI Needs Religion* (Maryknoll, NY: Orbis, 2020); Noreen Herzfeld, *The Artifice of Intelligence: Divine and Human Relationship in a Robotic Age* (Minneapolis: Fortress, 2023); Mark Graves, “Framing Theological Investigations of Near-Future AI,” *Theology and Science* 22/4 (2024), 657-661; Mark Graves, “Generative AI and Theology: A Three-Year Retrospective,” *Theology and Science* 24/1 (2026), 1-7.

기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이 다루는 연구 질문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AI 시대에 신학 논문 쓰기는 일반 학술 논문 쓰기와 어떤 점에서 변별되는가? 둘째, 그 변별성을 어떤 개념적 범주로 해명할 수 있는가? 이는 기존 담론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넘어서려는 시도이다. 곧 학술 윤리의 규범성을 받아들이되 그 도구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고, 저자성과 주체성 분석의 정밀함을 활용하되 그 좌표를 ‘하나님 앞의 자리’로 이동시키고자 하며, AI 신학 담론의 깊이를 잇되 그 초점을 ‘AI에 대한 신학’에서 ‘AI 시대의 신학 논문 쓰기’로 옮기고자 한다. 나아가 기존의 담론들이 신학 논문 쓰기의 수행적 기반으로서 기도의 역할을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AI 시대의 신학 논문 쓰기와 신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교차하여 그 본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신학 논문 쓰기를 저자성·책임성·자기화의 순환적 결합 위에서 신학자의 자기 형성을 위한 수행적 실천으로 재규정하며, 그 순환의 영적 기반으로서 기도를 제시한다.

## II. AI 시대 일반 학술 논문 쓰기와 신학 논문 쓰기의 자리

### 1. 생성형 AI와 학술 논문 쓰기의 구조적 변화

생성형 AI는 학술 논문의 생산 가속, 문체 평준화, 글쓰기 행위의 의미 변화 등을 동시에 가져왔다.<sup>4)</sup> 워드프로세서가 사용자의 문장을 시각적으

4) 이 현상들은 경험적으로도 확인된다. 한 연구는 210만 편의 프리프린트와 2만8천 건의 심사 보고서를 분석하여, LLM을 도입한 연구자의 원고 산출량이 분야와 저자 배경에 따라 23.7-89.3% 증가했다고 보고한다. 그 증가는 비영어권 연구자에게 집중되었으며, LLM 지원 원고에서는 문체적 정교함과 연구의 질 사이의 전통적 상관관계가 역전되어 언어적으로는 정교하나 내용적으로 빈약한 원고의 유입이 관찰되었다. Keigo Kusumegi et al., “Scientific Production in the Era of Large Language Models,” *Science* 390/6779 (2025), 1240-1243.

로 편집해 주는 도구라면, 생성형 AI는 사용자의 사유 자체를 선행적으로 구성해 제시해 주는 도구이다. 검색엔진이 자료의 목록을 제공한다면, 생성형 AI는 자료의 평가와 종합을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제공한다. 이로써 비교·평가·선별·구조화와 같은 인지적 노동의 일부가 이미 수행된 상태로 사용자에게 전달된다.<sup>5)</sup> 이는 인간, 특히 연구자의 인지적 판단과 결정을 기계 행위자에게 이양하는 셈이다. 인지과학은 이러한 이양을 ‘인지적 위탁(cognitive offloading)’이라는 개념으로 기술한다.<sup>6)</sup> 생성형 AI는 단순 기억이나 계산을 넘어 비교·종합·구조화와 같은 고차 인지까지 위탁의 범위로 끌어들인다. 이것은 사고와 판단의 과정을 소거하기에게 글 쓰는 주체는 글을 쓰면서 자기 자신에게 어떤 ‘흔적’이나 ‘변화’도 남기기 어렵다. 이러한 인지적 위탁과 ‘과정의 소거’가 맞물린 사태는 본질적으로 두 얼굴을 갖는다. 한편으로 사용자를 단순 반복 작업에서 해방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용자의 판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추적

5) 맞춤법 검사기나 문법 교정기가 이미 존재하는 텍스트를 다듬는 반응적 도구였다면, 생성형 AI는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학습하여 사용자의 관여에 앞서 새로운 텍스트를 산출한다는 점에서 범주적으로 구별된다. Mohammad Hosseini, Lisa M. Rasmussen, and David B. Resnik, “Using AI to Write Scholarly Publications,” *Accountability in Research: Policies & Quality Assurance* 31/7 (2024), 715-723. 이 기술이 착상·초고·수정이라는 글쓰기의 형성적 과정 자체를 우회하게 만든다는 진단으로는 다음을 보라. Chris M. Anson and Ingerid Straume, “Amazement and Trepidation: Implications of AI-Based Natural Language Production for the Teaching of Writing,” *Journal of Academic Writing* 12/1 (2022), 1-9.

6) ‘인지적 위탁(cognitive offloading)’ 개념의 고전적 정식화로는 다음을 보라. Evan F. Risko and Sam J. Gilbert, “Cognitive Offloading,”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20/9 (2016), 676-688.

7) 김성우는 생성형 AI에 의존한 글쓰기의 문제점을 “생산성의 과잉과 과정성의 부재”, 곧 “생산성이 과정성을 집어삼키는 현상”으로 표현한다. 생성형 AI는 글쓰기에 수반되는 인지적, 정서적 노동을 삭제하고, 그 과정에서 길러지는 지적, 정서적, 사회적, 윤리적 역량을 잠식한다. 예컨대 기계번역은 빠르고 편리하지만, 번역 과정이 가져다주는 고뇌와 환희, 깨달음의 경험을 소거한다. 김성우, 『인공지능은 나의 읽기-쓰기를 어떻게 바꿀까: 지금 준비해야 할 문해력의 미래』 (파주: 유희, 2024), 445-461.

하기 어렵게 만든다.

AI 시대에 ‘글을 쓴다’는 행위는 단일한 인간 주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을 산출하는 과정으로 가정될 수 없다. 그것은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가 결합된 복합적 수행으로 변형되었다. 이는 단순한 도구의 변화가 아니라 글쓰기 행위 자체의 의미 변화이다. 이 변화 앞에서 신학적 글쓰기는 두 갈래에 직면한다. 새로운 환경을 효율의 문제 또는 도구의 변화로 받아들이는 길과, 그 변화 속에서 본질적 차원에서 ‘신학 논문 쓰기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는 길이다. 본 논문은 후자를 택하며,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 신학적 글쓰기의 고유성을 해명한다.

## 2. 신학 논문 쓰기의 고유성: 지식 생산을 넘어 신학자의 자기 형성으로

신학 논문 또한 일반적 학술성을 공유한다. 그러나 신학 논문 쓰기에는 타 학문의 글쓰기와 구별되는 고유한 차원이 존재한다. 본 장은 이 고유성을 ‘지식 생산을 넘어선 자기 형성’으로 제시하되, 예상되는 반론인 “그 또한 모든 좋은 인문학적 글쓰기의 일반론이지 않은가”에 답한다.

신학적 언술은 객체에 관한 진술만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 그분의 계시, 그리고 그 계시 안에서 부름받은 교회를 향한 언어이다. 안셀무스(Anselmus Cantuariensis)가 자신의 신학적 사유를 기도의 형식으로 전개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신학적 언술의 자리는 본래 ‘하나님 앞(*coram Deo*)’이며, 따라서 그 언술은 결코 중립적 정보의 진술로 환원될 수 없다.<sup>8)</sup> 바르트(Karl Barth)가 신학을 “하나님에 관한 교회의 고유한 언술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리스도교 교회가 수행하는 학문적 자기 검증”으로 규정했을 때,<sup>9)</sup> 그는 신학이 단지 ‘무엇을 아는가’의 문제가 아닌, ‘교회가

8) Ian Logan, *Reading Anselm's Proslogion: The History of Anselm's Argument and Its Significance Today* (Farnham: Ashgate, 2009), 25-58.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자기 성찰적 학문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한 자기 검증 속에서 신학자는 자기 변화를 경험한다. 신학 논문 쓰기는 단지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를 담은 보고서를 넘어서, 사유의 과정을 통해 '어떤 신학자로 되어 가고 있는지'를 새기는 흔적이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제기될 반론을 다룰 필요가 있다. '글쓰기를 통한 자기 형성'은 이미 인문학 일반에서 충분히 다루어진 주제이다. 학자가 글쓰기와 학문적 실천을 통해 자신을 구성한다는 점은 오래된 통찰이며, 그 자체로는 신학적 고유성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본 논문이 말하는 '자기 형성으로서의 신학 논문 쓰기'는 좋은 인문학적 글쓰기의 일반론을 신학 영역에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sup>10)</sup> 이 반론에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형식적 차원에서는 두 형성이 분명히 공통점을 갖는다. 둘 다 글쓰기를 통한 자기 주체의 구성이며, 둘 다 사회적 위치 속에서 수행된다. 그러나 신학자의 자기 형성은 세 가지 구조적 표지에서 일반 학문의 자기 형성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첫째, 그 자리(*locus*)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학자의 자기 형성의 자리는 자기와 자기 사이, 혹은 학자와 학문 공동체 사이이다. 반면 신학자의 자기 형성의 자리는 일차적으로 '하나님 앞'이다. 이 자리는 단순한 종교적 수식이 아니라 신학적 언술 전체의 좌표를 규정하는 구조적 차원이다. 어떠한 글이 '하나님 앞'에서 쓰였는지 여부는, 그 글이 어떤 질문을 어떤

9) Karl Barth, *Church Dogmatics I/1: The Doctrine of the Word of God*, trans. G. W. Bromiley, ed. G. W. Bromiley and T. F. Torrance (Edinburgh: T&T Clark, 2009), 1.

10) 일반 학자의 자기 형성 담론에 관해서는 김성우, 『인공지능은 나의 읽기-쓰기를 어떻게 바꿀까』, 403-418을 보라. 김성우는 필자가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고, 그 경험을 빚어낸 사회문화적 맥락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글쓰기를 통해 '자기 형성'이 가능해진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이런 성찰의 태도는 특정한 에토스를 만들어 내며, 이것이 필자되기 핵심 조건이 된다. 생성형 AI는 이러한 에토스가 결여되어 있기에 필자-되기를 대신할 수 없다. 요컨대 "글쓰기는 이야기와 정보 생성을 뛰어넘어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앞의 책, 419.

마음의 자세로 다루는가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둘째, 그 과정의 성격이 다르다. 일반 학자의 자기 형성이 사회적 장 속에서 특정한 ‘아비투스’(habitus)<sup>11)</sup>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학자의 자기 형성은 ‘신앙적 통과’를 본질적 계기로 포함한다. 이는 단순히 학문적 역량을 누적하는 것을 넘어서, 신앙적 자기 이해의 성숙을 동반하는 것이다. 이 통과는 인지적 차원과 실존적 차원, 그리고 학문적 차원과 영적 차원이 분리되지 않은 채 진행된다. 셋째, 그 귀속이 다르다. 일반 학자의 자기 형성이 학문 공동체로의 사회화를 종착점으로 삼는다면, 신학자의 자기 형성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교회 공동체의 고백적 자리에까지 이른다. 한 신학자의 글은 동료 학자들에게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신앙 고백 안에서 그 진실성이 검토된다.

이 세 표지는 본 논문이 ‘형성’이라는 인문학적 어휘를 신학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근거이다. 본 논문이 말하는 자기 형성은 일반 학자의 자기 형성에 신학적 색채를 덧입힌 것이 아니라, 그 자리와 과정, 귀속을 다시 배치한 별개의 개념이다. 따라서 이 반론에 대해서 본 논문은 좋은 글쓰기의 일반론을 신학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신학적 글쓰기의 자리에서만 가능한 별개의 자기 형성 개념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렇게 변별된 신학자의 자기 형성은 저자성, 책임성, 자기화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구체화된다. 본 논문이 이 세 차원의 관계를 도식적으로 고정해 두는 이유는, 그것들이 논리적 순서를 따라 순환하기 때문이다. 그 순환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기화는 외부 자료를 자신의 사유 안으로 통과시켜 사유의 주체적 핵을 형성한다. 이 핵이 텍스트 안에 ‘등장’할

11) ‘아비투스’는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핵심 개념이다. 학자가 사회적 장 안에서 특정한 아비투스를 획득하고 형성한다는 관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Pierre Bourdieu, *Raisons pratiques: Sur la théorie de l'action*, 김웅권 역, 『실천이성: 행동의 이론에 대하여』 (서울: 동문선, 2005); *Homo Academicus*, 김정곤 역, 『호모 아카데미쿠스』 (서울: 동문선, 2005).

때 비로소 저자성이 성립한다. 그리고 그 저자성은 자신이 발화하는 언술이 누구 앞에서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의식하는 책임성에 의해 비로소 신학적 언술로 완성된다. 마지막으로 그 책임성의 자각은 다시 자기화의 과정을 더 깊고 정직한 방향으로 이끈다. 곧, ‘자기화 → 저자성 → 책임성 → 자기화’의 순환이다. 이 순환이 진행될 때마다 신학자는 자신의 질문과 판단, 책임이 놓인 좌표를 더 분명하게 의식하는 자리에서 사유하게 된다. 이 반복적 심화 과정을 ‘신학자가 되어 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어지는 세 장에서는 이 순환을 다루되, 통념적 논의의 진입점인 저자성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완성하는 책임성, 그리고 그 토대가 되는 자기화의 순서로 논증한다.

### III. 저자성: 신학 논문에서 누가 말하는가

저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글을 쓴 사람을 가리킨다. 본 장에서는 이런 통념적 저자성의 의미를 넘어 신학적 저자성의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 푸코(Michel Foucault)와 리쾨르(Paul Ricœur)를 중요한 두 축으로 소환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푸코는 “저자란 무엇인가?”라는 논문에서 저자성을 한 개인의 심리적 산출이 아니라 담론을 조직하고 책임지는 사회적·제도적 위치, 곧 ‘저자 기능’(fonction-auteur)으로 재정의한다.<sup>12)</sup> 그에 따르면 “저자 기능은 담론의 세계를 둘러싸고 한정하며 분절하는 사법적·제도적 체계와 연결되어” 있기에, 이는 “순수하고 단순하게 실제의 한 개인을 가리키지 않으며 따라서 몇 개의 자아를, 각기 다른 개개인들이 차지할 수 있는 몇 개의

12) 푸코의 저자 기능의 개념과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Michel, “Qu'est-ce qu'un auteur?” 장진영 역, “저자란 무엇인가?” 『미셸 푸코의 문학비평』, 김현 편 (서울: 문학과학사, 1989), 247-256.

주체-위치(positions-sujets)를 야기”한다.<sup>13)</sup> 이러한 주체-위치로서의 저자 기능은 단순히 저자의 내면이나 창조성을 가리키는 표지가 아니라, 텍스트들을 묶고 구분하며 다른 텍스트와 대조하는 분류의 담론적 장치로 작동한다. 이 분석이 지니는 강점은 저자를 낭만주의적 ‘창조자’의 신화로부터 해방시켜, 저자성이 역사적으로 구성되고 제도적으로 조건 지어진 것임을 드러낸 데 있다.<sup>14)</sup> 그러나 그 외부적·구조적 시선 때문에, 푸코의 분석은 한 저자가 어떻게 자신의 텍스트를 통과하며 ‘자기 자신’을 형성해 가는지 그 내부적 과정을 시야 밖에 둔다. 저자 기능은 담론의 질서 안에서 저자가 차지하는 자리를 기술할 뿐, 그 자리를 채우는 주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묻지 않는다.

반면 리쾨르의 ‘서사적 정체성’(identité narrative) 개념은 정반대 방향에서 출발한다. 리쾨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서사 이야기의 인물로 이해된 인격은 그의 ‘경험들’과 구분되는 실체가 아니다. 그 반대다. 그는 개진되는 이야기에 고유한 역동적 동일성[정체성]의 체제를 공유한다.”<sup>15)</sup> 다시 말해, ‘자기’(soi)라는 것은 이미 주어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구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글쓰기, 즉 서사의 구성은 단순히 이미 존재하는 자아를 표현하는 행위가 아니라, 텍스트라는 매개를 통해 자아의 의미를 해석하고 새롭게 빚어내는 자기 구성의 사건이다.<sup>16)</sup> 이 관점은 푸코가 해명하지 못한 저자성의 내부, 곧

13) 위의 논문, 256.

14) 푸코의 ‘저자 기능’ 개념이 저자를 역사적으로 상대화하고 담론의 질서 안에서 분류 기능을 수행하는 자리로 파악한다는 점에 대한 국내 논의로는 다음을 보라. 고규진, “저자/저자성의 문제: 바르트와 푸코의 영향을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67 (2015), 233-256, 특히 240-243 참조.

15) Paul Ricœur, *Soi-même comme un autre*, 김웅권 역, 『타자로서 자기 자신』 (서울: 동문선, 2006), 201.

16) 이와 관련하여 리쾨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기 이해는 하나의 해석이다. 차례로 자기의 해석은 많은 기호들과 상징들 가운데 이야기 속에서 우선적인 매개체를 만난

글쓰기가 어떻게 주체의 자기 형성으로 이어지는지를 밝혀 준다. 그러나 리쾨르의 분석만으로는, 그렇게 서사적으로 구성된 자아가 어떤 담론적·제도적 자리에서 자신의 언술에 대해 책임지는 주체로 서는지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요컨대 푸코는 저자성의 ‘자리’를, 리쾨르는 저자성의 ‘형성’을 밝히지만, 어느 쪽도 그 자리와 형성을 잇는 매듭, 곧 형성된 주체가 자신이 놓인 자리에서 감당하는 ‘책임’의 문제에는 이르지 못한다. 본 논문이 저자성을 책임 귀속의 관점에서 다시 묻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푸코의 외부적 분석은 저자의 ‘내면’ 자체를 의문에 부치는 반면, 리쾨르는 그 내면을 서사적으로 구성된 것이라 보면서도 그 실재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리쾨르가 후기에 푸코적 ‘거리 두기’를 자신의 비판적 자기화 안으로 적극 수용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17)</sup> 리쾨르는 후기 해석학의 주요 저작인 『텍스트에서 행동으로』에서 “이해는 자기화(appropriation)인 만큼 탈자기화(désappropriation)이다”라고 말한다.<sup>18)</sup> 그는 자기화와 탈자기화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타자성’ 없이는 ‘자기성’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논증한다. 이러한 점에서 두 입장은 단순한 종합 이전에 비판적 보완 관계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이 채택하는 신학적 저자성은 이 비판적 보완 위에서 성립된다. 푸코가 드러내듯 저자는 담론 내에서 구성되는 기능적 위치이며, 리쾨르가 강조하듯 그 저자는 동시에 텍스트를 통해 자기 자신을 구성하는 주체이다. 신학적 맥락에서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저자성은 텍스트의 물리적 소유권이 아니라, 신학적 문제의 기획·판단·조정·선택·삭

다.” 위의 책, 158.

17) 리쾨르가 푸코적 거리 두기를 자신의 비판적 자기화 안으로 수용한 후기 작업으로는 다음을 보라. Paul Ricœur, *Du texte à l'action*, 박병수·남기영 역,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과주: 아카넷, 2002), 113-134.

18) 위의 책, 133.

제·책임의 주체로 서는 사건이며, 동시에 그 텍스트 안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의 신학자’로 구성하는 사건이다.

이러한 저자성을 ‘학문적 지문(指紋)’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학문적 지문이란 한 연구자에게 고유한 질문 방식, 개념 선택의 습관, 인용의 태도, 텍스트를 읽는 감각, 그리고 망설임과 뉘앙스의 결이 결합된 사유의 양식이다. AI가 생성한 텍스트는 흔히 유창하지만 이러한 지문이 삭제되어 있고, 그 결과 냉담하고 균질한 ‘평균적 익명성’의 어조로 수렴된다. AI가 초안을 생성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자성의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결정적인 것은 그 초안을 둘러싼 일련의 판단들, 가령 ‘어떤 문제를 다룰 것인가’, ‘어떤 자료를 신뢰할 것인가’, ‘어떤 전통과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같은 판단들이 누구의 책임 아래 수행되었는가에 달려 있다.<sup>19)</sup> 바로 이러한 판단의 자리에서 연구자 자신의 학문적 지문이 유지되는지가 저자성의 실질적 기준이 된다. 다시 말해, 저자성은 AI 산출물에 대한 비판적 거리와 자기 판단의 회복을 전제하며, 다른 한편으로 AI 사용의 투명한 고지와 책임의 명료한 귀속을 요청한다. 본 장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신학 논문의 저자성은 문장의 소유권이 아니라, 사유와 판단과 책임의 주체로 서는 것이자, 그 텍스트 안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의 신학자’로 구성하는 것이다.

19) 이런 맥락에서 김양희는 저자성을 “단지 ‘누가 썼는가’를 표시하는 문제가 아니라, 글의 핵심 주장과 근거를 누가 선택·검증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가에 관한 개념”으로 확장시킨다. 그녀는 “생성형 AI가 글쓰기 과정에 깊이 개입하더라도 최종 제출물의 정확성(사실 확인), 정당성(인용·출처), 논증의 타당성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따라서 AI를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와 AI 산출물 중 무엇을 채택·수정·폐기했는지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양희, 『AI와 대학교양교육』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26), 65.

#### IV. 책임성: 신학의 예술은 누구 앞에서 책임지는가

저자성이 ‘누가 말하는가’의 문제라면, 책임성은 ‘누구 앞에서 말하는가’의 문제이다. 일차적으로 신학 논문 쓰기의 책임성은 학술 공동체가 공유하는 학문적 정직성에 속한다. 정확한 인용, 표절 금지, 출처 명시, AI 사용 고지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신학적 예술의 책임성은 본질상 학문 공동체를 넘어서 더 근원적인 자리를 향한다. 바르트는 “신앙의 자기 검증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이라는 관점은 필수적”이라고 말하는데,<sup>20)</sup> 이는 신학적 예술에도 그대로 관철된다. 신학적 예술은 학술 공동체 이전에 교회와 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예술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신학 논문 쓰기의 책임성을 삼중 구조로 정리한다. 첫째는 하나님 앞의 책임이다. 신학적 예술은 그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하며, 이는 단지 사실의 정확성을 넘어 신학적 진실성의 차원을 포함한다. 둘째는 학문 공동체와 교회 앞의 책임이다. 신학자는 학술적 규범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예술이 신앙 공동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셋째는 사회와 역사 앞의 책임이다. 본회퍼는 “소명은 책임이며, 책임은 전체 현실에 대한 전인격적인 온전한 응답”이라고 말한다.<sup>21)</sup> 그에게 ‘책임적 행위’(responsible action)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 사회 현실의 요청에 전인격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신학적 예술도 마찬가지로 타자와 현실의 부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역사와 이웃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위이다.<sup>22)</sup>

20) Karl Barth, *Church Dogmatics I/1*, 17.

21) Dietrich Bonhoeffer, *Ethics*, Dietrich Bonhoeffer Works vol. 6, ed. Clifford J. Green, trans. Reinhard Krauss, Charles C. West, and Douglas W. Stott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9), 293.

22)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위의 책, 257-289를 참고하라.

이 삼중 구조는 AI 시대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양상을 띤다. 하나님 앞의 책임은 ‘환각 인용’과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채택이 신학적 진실성 자체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더 날카로운 책임성을 요청한다. 학문 공동체와 교회 앞의 책임은 AI 생성 텍스트가 검증 없이 설교와 교회교육자료에 흘러 들어가, 신앙 공동체의 신학적 판단과 신앙 형성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무게를 갖는다. 특히 사회와 역사 앞의 책임은 AI 학습 데이터에 내재한 편향이 신학적 언술을 통해 사회적 담론으로 재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위험성을 갖는다. 리(Zhuoyan Li) 등이 진행한 실험 연구는 AI의 직접적인 내용 생성 지원이 저자의 책임감 인식을 유의하게 약화시킨다는 점을 보여 준다.<sup>23)</sup> 이는 신학적·윤리적으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기만적 내용·표절·편향 같은 도덕적 위험에 대해 저자가 스스로 책임을 지려는 태도가 구조적으로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판단의 위탁’이 ‘책임의 위탁’으로 손쉽게 이동하는 최근의 경향은, 신학적 언술의 책임이 ‘하나님 앞’에 속한다는 주장에 더욱 무게를 실어 준다.

생성형 AI는 때로 존재하지 않는 문헌을 인용하거나 실재하는 문헌을 부정확하게 인용한다. AI 시대의 학문적 책임성은 최소한 다음의 검증을 요구한다. ① 원전 대조: AI가 제시한 인용을 원전 또는 공인된 비평본과 직접 대조한다. ② 출판 정보 확인: 저자·서지·판본·쪽수가 권위 있는 서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재하는지 확인한다. ③ 맥락 적합성 검토: 인용이 원문 맥락에서 본문 주장의 근거로 적절하게 기능하는지 평가한다.<sup>24)</sup>

23) Zhuoyan Li, Chen Liang, Jing Peng, and Ming Yin, “The Value, Benefits, and Concerns of Generative AI-Powered Assistance in Writing,” in *Proceedings of the 2024 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New York: ACM, 2024), 1-25.

24) COPE, “Authorship and AI Tools”; Nature, “Tools Such as ChatGPT Threaten Transparent Science; Here Are Our Ground Rules for Their Use,” *Nature* 613

만약 ‘환각 인용’이 신학 논문에 침투할 경우, 그 결과는 단지 학술적 결함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 앞’의 자리에서 보자면 일종의 거짓 증언에 해당하며, 교리 이해의 왜곡, 성경 해석의 오도, 그리고 그 위에 기초한 설교와 교회교육의 신뢰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함의는 환각 인용 문제가 일반적 학술 정직성 위반과 변별되는 신학적 무게를 갖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 V. 자기화: 생성된 텍스트는 어떻게 ‘나의 말’이 되는가

저자성과 책임성이 신학 논문 쓰기의 조건이라면, 자기화는 신학자의 자기 형성을 뜻한다. 리코르는 “자기화는 거리에 의한, 거리를 둔 이해”라고 말한다.<sup>25)</sup> 즉 자기화란 단순한 동일시가 아니라 ‘비판적 거리’를 동반한 해석학적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텍스트가 ‘열어 주는 세계’를 자신의 이해 지평 안으로 통합하면서도 자신을 그 텍스트에 굴복시키지 않는 양면적 운동이다. 본 논문은 이 개념을 신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자기화란 타자의 말과 전통의 언어, 그리고 AI를 비롯한 보조 도구의 산출물을 비판적 거리 위에서 자신의 신학적 판단과 고백으로 재구성하는 자기 형성 과정이다. 이 정의에는 비판성, 거리, 통합, 형성이라는 네 가지 계기가 함축되어 있다.

AI가 다양한 자료를 조합하여 그럴듯한 텍스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곧장 자기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텍스트가 매끄러울수록 비판적 거리를 두기가 어려워지고, 그 결과 그것이 곧바로 ‘나의 텍스트’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다. 표면의 유창함과 정연함이 검증의 필요성

(2023), 612. 두 입장은 공히 AI는 저자 자격을 가질 수 없다는 것과 책임은 인간 저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449호, 2023년 전부개정) 또한 같은 방향을 따른다.

25) Paul Ricœur, *Du texte à l'action*, 132.

을 감각적으로 잊게 만들고, 텍스트의 낯센이 일으키는 해석학적 마찰을 제거해 버리기 때문이다.

리퀴르적 자기화의 본래 대상은 인간 저자의 텍스트, 곧 의도와 시대적 맥락을 가진 텍스트이다. 그러나 AI가 생성한 텍스트는 인간 저자의 의도가 부재한 통계적 산출물이며, 비판적 마찰을 일으키는 ‘낯센’이 의도적으로 제거된 텍스트이다. 따라서 AI 텍스트의 자기화에는 리퀴르적 ‘비판적 거리’의 새로운 적용이 요구된다. 그 핵심은 매끄러움이 비판적 검증을 면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표면적 유창함 너머의 사실성과 정합성을 점검하며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편향을 비판적으로 가려내는 것이다.<sup>26)</sup> 이러한 맥락에서 텍스트의 형식적 매끄러움은 오히려 더욱 날카로운 비판과 성찰을 요구한다. 이것이 AI 시대에 자기화의 새로운 도전이다.

자기화는 추상적 이념이 아니라 구체적 실천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AI가 제시한 본문 해석의 신학적 전제를 받아들이기 전에 검토하는 일, AI가 요약한 신학자의 입장을 일차 자료와 대조하여 재독해하는 일, 그 해석과 자신의 교회적 맥락 사이의 거리를 의식하는 일, 그 거리 위에서 자신의 언어로 다시 말하는 일 등이다. 이러한 사용방식을 통해 신학자는 AI 텍스트로부터 자기화의 비판적 거리를 확보하게 된다. 이와 같은 비판적 실천을 거칠 때, 비로소 외부에서 주어진 텍스트는 ‘나의 말’이 된다. 본 논문이 강조하는 것은, 자기화의 결과가 단지 ‘좋은 문장’이 아니라 ‘신학자의 자기 형성’이라는 점이다.<sup>27)</sup>

26) 머신 러닝은 데이터에 내재된 편향을 증폭시킬 위험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로는 다음의 논문을 보라. Tolga Bolukbasi, Kai-Wei Chang, James Zou, Venkatesh Saligrama, and Adam Tauman Kalai, “Man Is to Computer Programmer as Woman Is to Homemaker? Debiasing Word Embeddings,” arXiv:1607.06520 (2016), <https://arxiv.org/abs/1607.06520>.

27) 자기화가 단지 ‘좋은 문장’의 산출이 아니라 ‘신학자의 자기 형성’의 길이라는 점은

## VI. 기도: 저자성 · 책임성 · 자기화의 영적 기반

지금까지 신학 논문 쓰기의 고유성을 저자성 · 책임성 · 자기화라는 세 범주로 해명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하나의 구조적 질문을 남긴다. 저자성의 주체로서의 신학자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책임성의 핵심인 ‘하나님 앞’의 자리는 어떻게 이를 수 있는가? 자기화의 조건인 ‘비판적 거리’는 어디에서 확보되는가? 이 세 물음은 하나의 뿌리로 수렴된다. 신학 논문 쓰기의 세 범주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영적 실천인 기도 위에 기초해 있다. 본 장은 기도가 이 세 범주의 개념적 추가물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능케 하는 수행적 토대임을 논증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반론을 예상할 수 있다. 첫째는 기능적 등가성의 반론이다. 비판적 거리와 자기 형성은 기도의 전유물이 아니다. 세속의 학자 또한 명상과 침묵, 오랜 숙고와 퇴고, 동료의 조언과 비판을 통해 자신의 선이해와 거리를 두는 법을 익힌다. 아도(Pierre Hadot)가 보여 주었듯 고대 철학의 ‘영적 훈련’은 기도 없이도 주체의 변형을 수행했다.<sup>28)</sup> 그렇다면 기도란 성찰적 실천 일반에 붙인 신학적 상표에 불과하지 않은가. 둘째는 순환성의 반론이다. ‘신학적 글쓰기는 기도를 요구한다’는 주장은 ‘하나님 앞’이라는 좌표를 이미 수용한 이에게만 설득력을 갖는다. 그렇다면 본 장의 논의는

---

고대 철학의 ‘영적 훈련’ 전통과도 친화성을 갖는다. 이항만, “영성철학이란 무엇인가?: 피에르 아도(Pierre Hadot)의 고대철학을 중심으로,” 『가톨릭신학과사상』 91 (2024), 315-350. 본 논문은 자기화를 결코 ‘편향 제거’를 통한 객관성 확보 절차로 이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신학적 자리를 정직하게 의식하면서 그 자리 위에서 다시 말하는 형성의 과정으로 이해한다.

- 28) 이항만에 따르면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통해 사람들을 형성(form)하고 영혼을 변화(transform)시키려 하였다.” 즉 고대 철학에서 영성훈련은 종교적 차원의 훈련이라기보다는 “철학적 삶을 사는 방법에서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앞의 논문, 320-321.

논증이 아니라 고백의 반복이 아닌가.

첫째 반론에 대해 우리는 기도가 명상이나 성찰보다 비판적 거리를 ‘더 잘’ 산출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차이는 효과의 크기가 아니라 실천의 문법에 있다. 자기 성찰은 일인칭의 재귀적 실천이다. 거리를 두는 자와 거리의 대상이 되는 자가 동일한 자아이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 피할 수 없는 물음이 제기된다. 선이해를 유보하는 주체는 그 선이해에 의해 형성된 주체인데, 그 주체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유보할 수 있는가. 재귀적 성찰은 이 순환을 원리적으로 벗어나기 어렵다. 기도 역시 재귀적 성찰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기도는 본질적으로 이인칭의 실천, 곧 자기의 처분 아래 있지 않은 타자의 부름에 의한 것이다. 기도에서 거리는 자아가 하나님 앞에 불러 세워짐으로써 비로소 확보된다. 기도를 통한 거리 확보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롬 8:26)라는 성서 구절에 잘 나타나 있다. 코클리(Sarah Coakley)가 관상기도를 자기 통제 기술이 아니라 성령이 기도하는 자 안에서 기도하시는 사건으로 읽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sup>29)</sup> 자기비움은 자아가 수행하는 비움의 기술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일어나는 자아의 개방이다.

물론 이인칭적 실천이 기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재반론이 가능하다. 동료의 조언과 비판 역시 자기의 처분 아래 있지 않은 타자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동료 비판의 가치는 본 논문도 이미 책임성의 삼중 구조 안에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동료의 시선은 학문 공동체라는 동일한 장(場) 안에서 교환되는 수평적 타자성이며, 그 비판이 기대는 척도 자체가 그 장의 산물이다. 반면 기도에서 타자는 같은 장 안에 있는 또 다른 행위

29) Sarah Coakley, *God, Sexuality and the Self: An Essay 'On the Trin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100-151. 코클리는 롬 8:26에 대한 주해 위에서 관상기도를 성령이 기도하는 자 안에서 기도하시는 사건으로 읽는다.

자가 아니라, 장 자체를 비판의 자리로 소환하는 초월적 현존이다. 동료와의 관계가 상호 인정의 대칭적 관계라면, 기도의 관계는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불러 세워지는 비대칭적 관계이다. 따라서 기도에서 경험되는 비판적 거리는 개인이나 공동체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요컨대 동료 비판이 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평적 교정이라면, 기도는 장 전체를 상대화하는 수직적 소환이다.

철학적 영적 훈련과 그리스도교 기도 사이의 계보적 친연성은 부인될 수 없다. 그러나 철학적 훈련의 구조가 자기 규율을 통한 자기 완성이라면, 기도의 구조는 신의 부름에 대한 응답이다. 전자에서 변형의 주어는 자아이지만, 후자에서 자아는 변형의 주어이기 이전에 부름을 받은 수신자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찰적 실천 일반의 신학적 수용이나 변주가 아니라 성찰의 근거 자체를 자아 바깥에 두는 별개의 실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반론에는 두 가지로 답할 수 있다. 우선 신학적 언술이 ‘하나님 앞의 언술’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안셀무스에서 바르트에 이르는 신학의 자기 이해라면, 그 자리에 실제로 거주하는 실천인 기도는 언술에 부가되는 경건이 아니라 언술을 성립시키는 조건이다. ‘하나님 앞을 전제하지 않는 학문에 기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신학적 논증의 수신자는 신학자이며 그 범위는 신학 논문 쓰기이다. 순환처럼 보이는 것은 실은 분과의 자기 이해 안에 정합적인 내적 논증이다. 나아가, AI 시대는 이 내적 논증에 외적 시금석을 제공한다. 생성형 AI는 성찰의 형식을 모방할 수 있다. 유보의 수사, 자기비판의 문형, 균형 잡힌 논조는 모두 산출물의 속성이며, 산출물의 속성인 한, 원리적으로 위탁이 가능하다. 만일 글쓰기에서 중요한 것이 비판적 거리라는 형식적 효과뿐이라면, 그 효과의 모방으로 충분하며 명상이든 기도든 어떤 실천도 더는 요구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

나 신학적 글쓰기에서 기도가 위탁될 수 없는 까닭은 그것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위탁할 산출물이 없기 때문이다. 기도의 핵심은 기능이 아니라 자리이다.

코클리 역시 기도를 신학적 인식의 전제 조건으로 이해한다. 그녀는 자신의 신학을 ‘종합신학’(théologie totale)이라 부르는데, 그 이유는 신학이 본질적으로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나온 통찰들을 망라해 내는 시도이자, 교리와 실천에 대한 지적, 정서적, 창의적 접근들을 통합하는 시도”이기 때문이다.<sup>30)</sup> 그녀에 따르면 신학이 파편화되고 개별화된 관점들을 종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기도’를 바탕으로 수행된 학문이기 때문이다. 코클리에게 기도, 특별히 하나님께 침묵으로 나아가는 관상 기도는 신학을 가능하게 하는 인식론적 토대이다. 기도는 단지 신학의 내용이나 결론이 아니라 ‘신학 함’의 근원적 조건이다. 기도를 통해 신학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지적 통제를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신학적 언술의 주체로 형성된다. 안셀무스가 기도의 형식으로 자신의 신학을 개진한 것이 우연이 아니듯이, 신학적 인식은 그 본성상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sup>31)</sup>

기도는 먼저 저자성의 영적 기반이다. 신학적 저자성은 단순히 문장의 소유권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의 신학자’로 자기 자신을 구성하는 사건이다. 코클리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자아가, 자율적 자아도 타율적 자아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형성된 자아, 즉 ‘신율적 자아’(theonomous selfhood)로 변형될 수 있다고 말한다.<sup>32)</sup> 여기서 신율적 자아란 스

30) 위의 책, 352.

31) Logan, *Reading Anselm's Proslogion*, 25-58. 안셀무스는 “Proslogion”의 서문에서 이 작품의 원래 제목이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fides quaerens intellectum)이었음을 밝히며, 자신의 논의를 기도로 시작한다. 신 존재 논증이 기도의 맥락 안에서 전개된다는 점은, 신학적 추론과 기도가 구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32) Sarah Coakley, *The New Asceticism: Sexuality, Gender and the Quest for God* (New

스로 법을 세우는 자율적 자아나 외부의 법에 종속되는 타율적 자아와 달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의 방향과 형태를 부여받는 자아를 말한다. 학문적 지문이 어느 한 신학자의 고유한 질문 방식, 개념 선택의 습관, 인용의 태도를 가리킨다면, 그 지문의 영적 원천은 신학자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신학적 자리를 반복적으로 물어 온 역사이다. AI가 생성한 텍스트에 신학적 지문이 남지 않는 까닭은 단지 AI에 고유한 개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흔적이 새겨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신학에서의 저자성 회복은 기도하는 자아의 형성과 분리될 수 없다.

기도는 또한 책임성의 실천적 형식이다. 앞서 신학적 책임성을 하나님 앞과 학문 공동체와 교회 앞, 그리고 사회와 역사 앞이라는 삼중 구조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신학의 독특성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은 어떻게 실천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이고 실존적으로 거주하는 행위, 곧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기도 안에서 신학자는 자신의 언술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무게를 실존적으로 감지하며, 그 감지 속에서 책임성은 추상적 규범에서 벗어나 살아 있는 실천 행위로 거듭난다. 손더레거(Kathryn Sonderegger)는 이 점을 신학방법론의 층위에서 명시한다. “하나님 교리는 기도라는 날개를 달지 않을 수 없다. 중보, 회개, 예배, 찬송으로 뜨거워진 마음이 없다면, 그 어떤 연구도 검토도 이해도 있을 수 없다.”<sup>33)</sup> 여기서 ‘회개’와 ‘중보’는 단순한 신앙 훈련이 아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언술을 다시 묻는 행위이며, 중보는 타자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이다. 회개와 중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의 무게를 실존적으로 감지하는 행위,

---

York: Bloomsbury, 2015), 106.

33) Kathryn Sonderegger, *Systematic Theology 1: The Doctrine of God*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5), xxi.

곧 책임성의 가장 구체적인 실천이라 할 수 있다. AI는 신학적 책임의 구조를 묘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책임성의 삼중 구조에서 가장 기초적 층위, 곧 하나님 앞에서의 성찰과 책임은 기도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나아가 기도는 자기화의 영적 조건이다. 앞선 장에서 논한 바와 같이, 자기화는 타자의 텍스트를 비판적 거리 위에서 자신의 신학적 판단으로 재구성하는 형성적 과정이다. 이 비판적 거리는 신학자가 자신의 선이해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확보된다. 코클리는 기도의 핵심을 ‘자기비움(*kenosis*)의 훈련으로 이해한다.<sup>34)</sup> 이 비움은 단순한 자아의 소멸이 아니라, 자아를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 열어 놓는 수용적 자세이다. 이 수용적 자세가 바로 자기화에서 요구되는 ‘비판적 거리’의 영적 형식이다. 기도 안에서 자신의 선이해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신학자만이 타자의 목소리를 왜곡 없이 받아들이는 진정한 자기화에 이를 수 있다. 기도는 자기화에 단순히 부가되는 요소가 아니라, 자기화를 신학적으로 성립시키는 필수 조건이다.

세 범주 모두에 걸쳐 기도가 갖는 특별한 역할은 AI 시대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AI는 신학적 언어를 유창하게 생성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없다. AI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신율적 자아로의 변형을 위한 훈련을 할 수도 없으며, 비판적 거리를 두기 위해 자기비움의 결단을 내릴 수도 없다. 앞선 논증이 보여 주듯, 기도는 신학 논문 쓰기에서 AI로 위탁될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과정이다. AI 시대 글쓰기 위기의 본질이 판단/인식의 위탁 혹은 과정의 소거라 할 때, 신학 논문 쓰기에서 소거될 수 없는 핵심 과정은 바로 기도이다.

34) 코클리는 기도를 “금욕적인 헌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드리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규칙적이고 의지적인 연습”으로 이해한다. Sarah Coakley, *Powers and Submissions: Spirituality, Philosophy and Gender* (Malden: Blackwell, 2002), 34.

이처럼 기도는 저자성 · 책임성 · 자기화를 개념적으로 연결하는 단순한 종합어가 아니다. 기도는 세 범주 각각이 신학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수행적 기반이다. 신학자가 기도의 자리에 머물 때, 저자성은 신율적 자아의 표현이 되고, 책임성은 하나님 앞에서의 실존적 자각이 되며, 자기화는 개발된 자기 형성의 사건이 된다. 요컨대 기도는 '신학자가 되어 가는 길'의 구체적 형식이다.

## VII. 나가는 말

본 논문은 생성형 AI가 학술 글쓰기의 조건을 변형시킨 시대에 신학 논문을 쓴다는 것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재정의하였다. 생성형 AI가 초래한 글쓰기 위기의 본질이 비교 · 평가 · 선별 · 구조화 같은 인지의 위탁과 그에 따른 '과정의 소거'에 있다면, 재정의의 핵심은 신학 논문 쓰기를 지식 생산의 기술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과하는 신학자의 자기 형성을 위한 수행적 실천으로 이해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은 이 재정의의 '자기화 → 저자성 → 책임성 → 자기화'로 이어지는 세 범주의 순환적 결합으로 구체화한다. 자기화는 외부 자료를 자신의 사유 안으로 통과시켜 사유의 주체적 핵을 형성하고, 그 핵이 텍스트에 등장할 때 저자성이 성립하며, 저자성은 자신의 언술이 누구 앞에 서는가를 의식하는 책임성으로 완성되고, 그 책임의 자각은 다시 자기화를 심화한다. 이 순환이 거듭될 때마다 신학자는 자신의 질문과 판단과 책임이 놓인 좌표를 더 분명하게 의식하게 되며, 이 반복과 심화가 '신학자가 되어 가는 길'을 구성한다. 이 길이 일반 학문의 자기 형성과 변별되는 까닭은 세 가지 구조적 표지, 곧 '하나님 앞'이라는 자리, 신앙적 통과라는 과정, 교회 공동체 앞의 고백적 책임에 있다. 이 세 표지가 자기화 · 저자성 · 책임성의 세 범주를 신학적으로 특징지으며, 그 전체를 수행적으로 지탱하는 기반이 기도이다.

이상의 논의가 함축하는 바를 세 가지 명제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생성형 AI는 인지적 위탁과 과정의 소거를 통해 신학 논문 쓰기의 조건을 변경하였지만 그 본질을 대체하지는 못한다. 둘째, AI 시대일수록 신학 논문 쓰기는 다음의 세 범주를 더욱 절실하게 요구한다. 저자성은 문장의 소유권이 아니라 판단의 주체가 되는 ‘학문적 지문’의 유지로, 책임성은 ‘하나님 앞’, ‘학문 공동체와 교회 앞’, ‘사회와 역사 앞’이라는 삼중 구조의 더 날카로운 검증으로, 자기화는 매끄러운 산출물에 맞서 ‘비판적 거리’를 회복하는 자기 형성적 실천으로 구체화된다. 셋째, 이 세 범주를 지탱하는 기도는 AI에 위탁될 수 없다. 성찰의 형식은 산출물로 모방될 수 있으나 기도는 산출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의 자리이기에, 위탁할 대상 자체가 없다. 따라서 신학 논문 쓰기는 결과물의 생산이 아니라 ‘신학자가 되어 가는 길’이며, 그 길은 AI 시대에도 인간 신학자에게 고유하게 놓여 있다. 바르트는 신학을 ‘아름다운 학문’이라 부른 바 있다.<sup>35)</sup> 신학이 아름다운 까닭은 그것이 단지 정보의 체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한 인간이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형성해 가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AI 시대에도 이 아름다움은 유지될 것이다. 신학자가 더 많은 정보를 더 빠르게 텍스트화하는 능력이 아니라, 기도 안에서 더 깊이 판단하고 더 책임 있게 말하며 더 진실하게 자기화하는 능력을 유지하는 한에서 말이다.

35)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학은 전체로서, 그리고 그 각 부분과 상호 연관 속에서,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독특하게 아름다운 학문이다. 실로 우리는 신학이 모든 학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Karl Barth, *Church Dogmatics II/1: The Doctrine of God*, trans. T. H. L. Parker, W. B. Johnston, H. Knight, and J. L. M. Haire, ed. G. W. Bromiley and T. F. Torrance (Edinburgh: T&T Clark, 2004), 656.

## 참고문헌

- 고규진, “저자/저자성의 문제: 바르트와 푸코의 영향을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67 (2015), 233-256.
-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훈령 제449호, 2023.
- 김성우, 『인공지능은 나의 읽기-쓰기를 어떻게 바꿀까: 지금 준비해야 할 문해력의 미래』, 파주: 유투, 2024.
- 김양희, 『AI와 대학 교양교육』,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26.
- 이향만, “영성철학이란 무엇인가?: 피에르 아도(Pierre Hadot)의 고대철학을 중심으로,” 『가톨릭신학과사상』 91 (2024), 315-350.
- Anson, Chris M., and Ingerid Straume. “Amazement and Trepidation: Implications of AI-Based Natural Language Production for the Teaching of Writing,” *Journal of Academic Writing* 12/1 (2022), 1-9.
- Barth, Karl. *Church Dogmatics I/1: The Doctrine of the Word of God*. Translated by G. W. Bromiley. Edited by G. W. Bromiley and T. F. Torrance. Edinburgh: T&T Clark, 2009.
- \_\_\_\_\_. *Church Dogmatics II/1, The Doctrine of God: The Knowledge of God; The Reality of God*. Translated by T. H. L. Parker, W. B. Johnston, H. Knight, and J. L. M. Haire. Edited by G. W. Bromiley and T. F. Torrance. Edinburgh: T&T Clark, 2004.
- Bolukbasi, Tolga, Kai-Wei Chang, James Zou, Venkatesh Saligrama, and Adam Tauman Kalai. “Man Is to Computer Programmer as Woman Is to Homemaker? Debiasing Word Embeddings.” arXiv:1607.06520 (2016), <https://arxiv.org/abs/1607.06520>.
- Bonhoeffer, Dietrich. *Ethics*. Dietrich Bonhoeffer Works, vol. 6. Edited by Clifford J. Green. Translated by Reinhard Krauss, Charles C. West, and Douglas W. Stott.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9.
- Bourdieu, Pierre. *Raisons pratiques: Sur la théorie de l'action*, 김웅권 역. 『실천이성: 행동의 이론에 대하여』, 서울: 동문선, 2005.
- \_\_\_\_\_. *Homo Academicus*, 김정곤 역. 『호모 아카데미쿠스』, 서울: 동문선, 2005.

- Coakley, Sarah. *The New Asceticism: Sexuality, Gender and the Quest for God*. New York: Bloomsbury, 2015.
- \_\_\_\_\_. *God, Sexuality and the Self: An Essay 'On the Trin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 \_\_\_\_\_. *Powers and Submissions: Spirituality, Philosophy and Gender*. Malden: Blackwell, 2002.
-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Authorship and AI Tools." *COPE Position Statement*, February 13, 2023.
- Delio, Ilia. *Re-Enchanting the Earth: Why AI Needs Religion*. Maryknoll, NY: Orbis, 2020.
- Foucault, Michel. "Qu'est-ce qu'un auteur?" 장진영 역. "저자란 무엇인가?" 『미셸 푸코의 문학비평』, 김현 편, 238-275. 서울: 문학과지성사, 1989.
- Graves, Mark. "Generative AI and Theology: A Three-Year Retrospective." *Theology and Science* 24/1 (2026), 1-7.
- \_\_\_\_\_. "Framing Theological Investigations of Near-Future AI." *Theology and Science* 22/4 (2024), 657-661.
- Herzfeld, Noreen. *The Artifice of Intelligence: Divine and Human Relationship in a Robotic Age*. Minneapolis: Fortress, 2023.
- Hosseini, Mohammad, Lisa M. Rasmussen, and David B. Resnik. "Using AI to Write Scholarly Publications." *Accountability in Research: Policies & Quality Assurance* 31/7 (2024), 715-723.
- Kusumegi, Keigo, et al. "Scientific Production in the Era of Large Language Models." *Science* 390/6779 (2025), 1240-1243.
- Li, Zhuoyan, Chen Liang, Jing Peng, and Ming Yin. "The Value, Benefits, and Concerns of Generative AI-Powered Assistance in Writing." In *Proceedings of the 2024 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1-25. New York: ACM, 2024.
- Logan, Ian. *Reading Anselm's Proslogion: The History of Anselm's Argument and Its Significance Today*. Farnham: Ashgate, 2009.
- Nature. "Tools Such as ChatGPT Threaten Transparent Science; Here Are Our Ground Rules for Their Use." *Nature* 613 (2023), 612.
- Ricœur, Paul. *Soi-même comme un autre*, 김웅권 역. 『타자로서 자기 자신』. 서

을: 동문선, 2006.

\_\_\_\_\_. *Du texte à l'action*, 박병수 · 남기영 역,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파주: 아카넷, 2002.

Risko, Evan F., and Sam J. Gilbert. "Cognitive Offloading."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20/9 (2016): 676-688.

Sonderegger, Kathryn. *Systematic Theology 1: The Doctrine of God*.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5.

UNESCO. *Guidance for Generative AI in Education and Research*, Paris: UNESCO, 2023.

Wachter, Sandra, Brent Mittelstadt, and Chris Russell. "Do Large Language Models Have a Legal Duty to Tell the Truth?" *Royal Society Open Science* 11/8 (2024): 1-38.

논문투고일: 2026년 07월 15일

심사개시일: 2026년 07월 17일

게재확정일: 2026년 08월 04일

---

• 국 문 초 록 •

---

본 논문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학술 글쓰기의 조건을 바꾼 시대에 신학 논문을 쓴다는 것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재정의한다. 기존 논의가 “AI를 사용해도 좋은가”라는 도구적 물음에 머문 데 비해, 본 연구는 질문을 전환하여 “AI 시대에 신학 논문을 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묻는다. 위기의 본질은 비교·평가·구조화라는 고차 인지의 위탁, 그리고 그에 따른 과정의 소거에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신학 논문 쓰기를 지식 생산이 아니라 신학자의 자기 형성을 위한 수행적 실천으로 재규정하고, 저자성·책임성·자기화의 순환적 결합으로 그 고유성을 해명한다. 자기화는 저자성의 토대를 놓고, 저자성은 책임성을 통해 신학적 언술로 완성되며, 책임성의 자각은 다시 자기화를 심화한다. 기도는 이 세 범주에 추가되는 요소가 아니라 순환 전체를 정립하는 수행적 근거이다. 신학자의 자기 형성은 하나님 앞의 자리, 신앙적 통과, 교회의 고백적 자리라는 세 표지로 일반 학자의 자기 형성과 변별된다. AI 시대의 신학은 더 많은 텍스트를 생산하는 능력이 아니라, 기도 안에서 깊이 판단하고 책임 있게 말하며 진실하게 자기화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주제어:** 생성형 인공지능, 신학 논문 쓰기, 저자성, 책임성, 자기화, 기도, 신학자의 자기 형성

---